유관단체를 찾아서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업계 권익 신장 위해 협동사업 펼쳐

풀뿌리 생명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사에 비전 제시

순수 지함공업인 주체로 설립

"지함업체는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경쟁력에서는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히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대길(영진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사장은 지함업계가 유관 대기업 및 정부 유관기관의 참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뿌리내린 전문업체들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업계의 현실을 안타까와 했다.

지난 89년 조합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지함업체는 골판지 원단업체에서 생산한 원단을 구입하여 제품의 형태에 따라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판지업계의 현황은 골판지 및 일반 판지원단 제조업체 1백60여개사, 상자가공 전문업체 1천2백여개사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난 90년대부터 증설, 교체하기 시작한 자동화 시설의 증가와 경공업체(상자 다량소비업체)의 침체로 업계의 생산물량은 증가하였으나 내수시장의 축소 및 물량감소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 골판지 원단업체의 상자 생산라인 증설로 순수 지함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중소 지함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상호간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지함조합은 지난 85년 대형업체의 덤핑과 원단값 인상을 위한 담합행위 등 많은 경영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어려운 현실을 주시하다 업계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 산

발적으로 결성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모임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 1989년 11월 상공부의 인가를 받아 순수 지함공업인의 주체로 설립, 업체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창립 후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은 조합원사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매년 각종 관련세미나, 자료제공 등을 통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백87개업체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합내에는 이대길 이사장을 비롯해 강종찬 전무이사 등 5명의 직원들이 조합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내에는 11개 운영위원회와 전국 지역별 8개지회를 운영, 운영위원회 및 지회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 공동판매·구매계획, 조합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대길 이사장

공동사업으로 조합원사 경영안정 도모

이같은 과정을 종합하여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이 펼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골판지 상자 및 판지상자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제품을 구매토록 규정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 조달청, 한국담배인삼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납품하여 조합원사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사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조합이 주체가 되어 공동구입, 지원하는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사업 자금과 자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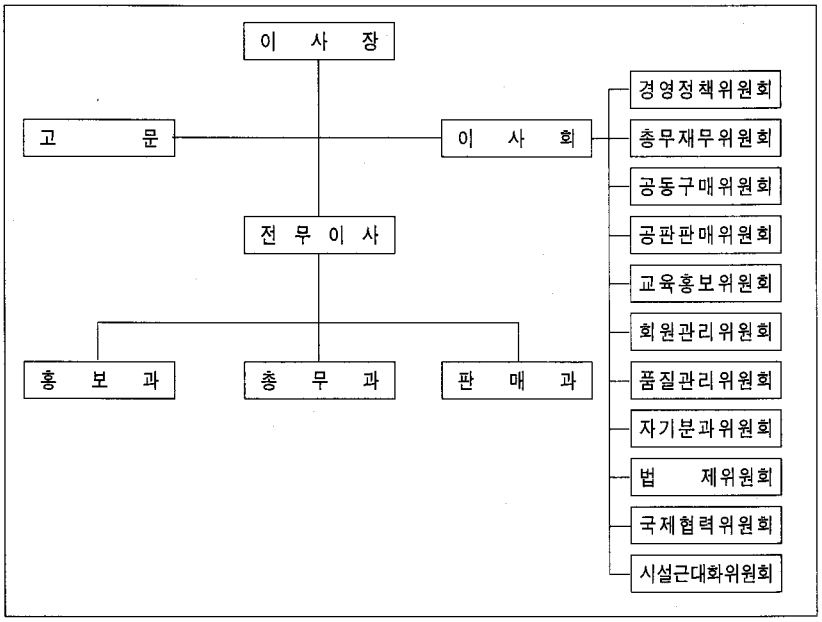
이와함께 지함업계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여 대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건, 청원, 보고 등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지함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를 비롯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제조업의 소득세율 인하', 대기업의 지함업계 위장침투사례 적발', '지함업계 산재율 조정' 등 크고 작은 건의와 보고를 통해 업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첨단 생산기술 교육과 급변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함업계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단합대회 및 보고대회', '해외연수 및 시찰',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 증대에 의해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창립과 함께 발행하기 시작한 '지함소식'을 매달 전국 1천 5백여 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무료 배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업계동정', '신기술 소재', '해외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 지함업계의 당면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여 지함

〔표 1〕 지함조합의 기구표



〔표 2〕 공동구매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품명	1993년도			1994년도	93실적 : 94년계획	
		계획	실적	%		증감액	증감률(%)
공동구매 대출사업	골판지	2,340,000	2,375,810	101.5	3,785,000	1,409,190	59.3
	제지	960,000	—	—	310,000	310,000	—
	철선	100,000	—	—	100,000	100,000	—
	잉크	100,000	—	—	100,000	100,000	—
	밴딩	100,000	—	—	100,000	100,000	—
소계		3,600,000	2,375,810	66.0	4,395,000	2,019,190	85.0
공동구매 알선사업	골판지	—	—	—	1,494,350	1,494,350	100.0
					1,494,350	1,494,350	100.0
계		3,600,000	2,375,810	66.0	5,889,350	3,513,540	147.9

〔표 3〕 공동판매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품명	1993년도			1994년도	93실적 : 94년계획	
		계획	실적	%		증감액	증감률(%)
단체수의 계약사업	골판지	3,500,000	3,084,534	88.1	2,749,000	△ 335,534	△ 10.9
	상자						
	판지	500,000	—	—	100,000	100,000	—
	상자						
계		4,000,000	3,084,534	77.1	3,249,000	164,466	5.3
합계		7,600,000	5,460,344	71.8	9,138,350	3,678,006	67.4

인의 대변지로 성장했다.

외국의 신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일본, 중국, 대만 등에 해외시찰단을 파견,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활동, 박람회참관 및 세미나참가로 선진기술을 도입,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이같은 사업목표 아래 올해에는 조직강화 및 내실화운영을 위해 비조합원의 가입독려, 각 분과위원회 내실화 운영추진, 지역별 간담회 개최 운영지도,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공동구매 및 단체수의계약, 공동 구·판매사업 활성을 위한 신규 수요처 현황파악 등 공동사업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 및 간담회, 국내외 관련자료 제공 등 신기술 및 정보제공 지원, 업체 기본실태, 경영실태 조사 및 운영지도 적극추진, 조합 위상강화, 지함소식 정보기능 확대 등 홍보사업 활동강화에 역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구매사업은 골판지, 제지 등 58억8천9백35만원, 공동판매사업 91억3천8백35만원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조합은 조직강화사업, 기획조사사업, 공동사업, 교육연수사업, 수출진흥 및 기술경영지도사업, 회의 및 행사, 홍보사업 등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함업계는 일부 원단업체와 이들과 결탁한 지함업체의 무분별한 덤핑행위가 계속돼 원단 제조업체에서는 지함업체에 판매하는 원단가에 불과한 금액으로 상자를 납품, 많은 물량을 원단업체에 침식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과 함께 원단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자가격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건비, 원단가 상승으로 이중고

여기에 지난 몇년간의 상자값의 인상에 비례하여 임금의 상승률은 약 1백5% 이상 인상되었고, 이와함께 3D현상의 기피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

여건과 함께 부피가 커 운송비의 부담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지함업계로선 가중되고 있는 물류비의 증가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합원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경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고, 제품 선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대길 이사장은 지함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지함제품 사용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고 둘째, 업계에 종사하는 경영인과 종업원 모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의식의 전환, 셋째, 원자재 공급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넷째, 다품종 소롯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의 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골판지 업체가 지함제조에 나서면서 소규모 지함업체들이 설땅을 잃고 있어 순수 지함업체가 공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젊은 지함인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협동화단지의 설립을 통한 단결로 대기업에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개방이 되면 단체수의계약 특혜가 없어지게 돼 이에 대비한 교육, 정보 등 업계가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 말했다.

전문화, 세분화에 주력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판매촉진을 도와주는 구매촉진법이 존속돼야 하며, 업체들도 전문화, 세분화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20인이하 소기업이 76%인 지함업계의 현실을 볼 때 담보대출의 관행을 신용위주로 개선하는 금융정책의 과감한 구조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지함업계는 인력이 부족한데도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구조도 개선돼야 할 점이라 진단했다.

사실 인력난의 해결은 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가능하다 지적하고 있으나 자동화는 생산을 증진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자동화된 설비를 운영할 인력이 또 필요하게 돼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란 견해도 밝혔다.

지함업체의 현실을 비춰볼 때 앞으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의 경우처럼 가족이 운영하거나 소규모의 가내공업으로 명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예견하듯 이 이사장은 5인이내 운영이 가능한 기계를 제작할 것을 기계업체에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황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에도 타에 의한 업계의 재정립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말했다.

지함조합은 어려움속에서도 업계에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지상자 및 골판지상자의 표준화를 조합에서 운영하고 조합이 지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조합원사들에 이익이 돌아가는 조직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 환경관련 강력한 규제를 병행하되 업종특성에 맞게 정부가 대체산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외포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골판지상자를 제조, 판매하는 지함업체들. 이들을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이끌어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조합.

이제 설립 5년째를 맞는 지함조합은 국제화에 따른 새로운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조합원사는 물론 비조합원사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관련 제지업계, 골판지 원단업체, 지함업체가 서로 보완해 가며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지함업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풀뿌리처럼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말이 지함조합의 미래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는 자생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 내포되어 있음을 상기해 본다.

오선진 기자

〔표 4〕 조합원사 생산실적

구분	품목	생산실적		93실적 : 94년계획		생산
		수량	금액(백만원)	증감액	증감률(%)	조합원수
1990년	골판지 상자	325,620,000m²	133,333	384,558,000m²	1,409,190	125
	판지상자	55,000연	5,569	172,000연	17,021	11
1991년	골판지 상자	332,322,948m²	129,938	544,791,718m²	213,013	149
	판지상자	162,505연	16,250	232,150m²	23,215	23
1992년	골판지 상자	382,171,390m²	149,428	626,540,475m²	244,965	173
	판지상자	186,880연	18,688	266,972연	26,679	27
1993년	골판지 상자	516,219,047m²	216,812	806,592,261m²	338,768	187
	판지상자	492,050연	59,046	674,041연	80,884	40